



금 철, 백은영 선교사 대만 선교 편지 51

"All things are under His control"

찬미예수!

주님 안에서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지역을 초월한 보좌 앞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팬데믹과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힘입어 더욱 견고해지고 강한 기초들이 닦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대만 이야기 -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대만의 Covid19 현재 확진 1,039명에 사망 10명입니다. 최근 대만 섬에 비가 오지 않아 4월부터 중부 타이쑹은 주 5일만 수도가 나옵니다. 대만의 중남부는 56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 산업과 일반생활에까지 어려움이 큼니다. 대만은 섬나라로서 태풍과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습니다. 현재 대만은 연일 30도를 웃도는 고온에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대만은 1~2개월 사이 육해공 전 영역에서 재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4월 2일 아침 동부 타이둥(台東)으로 가던 급행열차가 화련에서 탈선하여 현재 51명 사망, 156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가슴 저린 사연들과 현장의 처참함은 목불인견의 아픔입니다. 대만은 섬의 지리적 특성상 자연재해가 많고 각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리에서는 거의 매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목격합니다. 대만의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깊어갑니다.

한편 대만의 설날 아침 타이쑹 대형전통사원에서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빠이빠이(拜拜)를 했는데 그 규모에 놀라고 그들의 경건함과 열정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무엇보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 섬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위엔빠오궁(元保宮) 음력설날 빠이빠이(拜拜))

② 타이쑹 광야교회(基督教台中曠野教會) 소식

타이쑹 광야교회는 지난 해 8월 현재 장소로 이전하기까지 3회의 40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도시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많고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대만선교는 기본적으로 영적싸움이 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시간 매일 새벽기도와 저녁기도를 가지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힘껏 했습니다. 주중에는 주변지역을 돌면서 땅밧기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부활절 후에는 실제적으로 준비된 영혼들을 찾고 풀어내 찾아오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고 견고한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구정 설날 감사예배 가족들과 함께)

일대일 양육은 메이웨이(美惠)자매가 꾸준히 참석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야웨이(雅穗) 자매는 기초양육 중에 남편 회사의 팬데믹 경계가 심해져서 현재 두 딸과 함께 교회출석이 보류 중입니다. 그러나 자매가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사모하고 있습니다. 교회청년들 가운데서도 양육과 훈련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지난 성탄이브 초청전도행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가족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③ 정신병원 병동예배 - 후쭈젠(胡素貞)

웨이신(惟新) 정신병원 장기입원병동의 심방과 예배는 팬데믹으로 정지되고 면회도 수시로 개방되었다가 폐쇄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후쭈젠(胡素貞) 자매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소화기 계통의 장애가 생겨 치료 중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장애가 있어도 고통스러운데 정신이 병들면 자율적인 생활이 어렵고 무엇보다 영적으로도 혼돈스러워집니다. 주중 1회 방문 때마다 유리문 밖에서 쳐다보는 간절한 눈빛들과 애절한 요청에 연민을 느낍니다.



(가운데 후쭈젠(胡素貞) 자매입니다.)

④ 가정이야기- 아이들의 졸업과 진로

막내 한빛은 맹장수술 후에는 장염이나 복통이 없이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아이는 6월에 졸업하면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합니다. 그럼 6월에 귀국해서 원서접수를 해야 하는데 준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남 은찬도 6월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현지에서 채용요청이 들어와서 서류작업과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림은 여전히 이번 학기도 대만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현지대학에서 중국어도 배우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족들이 함께 날마다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 부부는 가정, 교회, 사역과 개인의 영성관리에 지혜로운 청치기로 드러지길 애씁니다. 2년 전 안식년을 마치고 귀임한 후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명의 주님께 무한충성 드립니다.



(3월 대만중부선교사회 기도회 - 광야교회)

⑤ 감사와 기도제목

- * 타이쥡광야교회(台中曠野教會)에 새 생명을 보내주심
 - * 풍성한 은혜의 감동과 세밀하신 공급하심에 감사
 - * 가족들이 다 함께 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
 - *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사역 집중할 수 있게 하심 감사
1. 대만 섬에 진정한 회개, 영적갱신, 부흥을 주옵소서!
대만의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재난 중에 주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주소서!
 2. 동역하는 난툰(南屯)교회, 언릉(恩榮)교회,
도시의 빛(城市之光)교회, 활천교회(活泉教會),
아가페교회(聖愛教會), 화평교회(和平教會)와
타이쥡광야교회(台中曠野教會)가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지도록
 3. 파송교회와 후원자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4. 타이쥡광야교회(台中曠野教會) 전도의 문 열어주시며
참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부흥의 통로가 되도록
 5. 우상숭배, 조상숭배, 마귀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복음
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결박이 풀어지도록
 5.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말씀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성령의 감동이 넘치도록
 6.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장성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7. 한국의 양가 노모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8. 금 철 백은영 선교사 영혼육이 은혜로 강건하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동행 가운데 전적순종 하도록
 9. 자녀들이 각자 새로운 현장에서 인도하심 따라 순종
하고 주님 앞에서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10. 후쭈젠(胡素貞) 맑은 정신과 바른 신앙 주시도록

2021년 4월 3일

대만 타이쥡에서

금 철 백은영(은찬 하림 한빛) 선교사 드림

Keum Cheol, (Taichung Wilderness Community Church)
No. 7, Lane 26, Section 1, Qingdao Road,
North District, Taichung City 40464, R. O. C. TAIWAN

40464 台中市北區青島路一段26巷7號 (基督教台中曠野教會)
TAIWAN : 886-4-2299-2950(H), 886-933-778-291(Cell),
82-70-7568-0644(LG) 琴詒, 白恩映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만선교와 땅끝선교